

#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회\*

##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Committee of International Affairs, Korean Medical Association\*

\*Corresponding author: Dong Chun Shin, E-mail: dshin5@yuhs.ac.kr

Received May 9, 2012 · Accepted September 18, 2012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has made great strides in international affairs since it joined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in 1949. Joining the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CMAAO) followed in 1956 and activities in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uilt a foundation for growth. After long years of experie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ese organizations, the KMA successfully hosted the WMA General Assembly in Seoul in 2008, marking the pinnacle of its international achievements. Today, the KMA plays a key role in the world health arena by serving as a council member in the WMA and as council chair in the CMAAO. KMA continues to expand its spectrum of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collaboration including close ties with medical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 form an effective channel to keep up-to-date on trends and changes worldwide and to find clues for addressing local issues. Sharing values with similar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will give us solid ground to stick to our mission of serving for human health and happiness. For further growth in international influence and capacity, the KMA needs to take multifaceted and strategic approaches in both multilateral exchange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ilateral exchanges with national medical associ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MA's international affairs and shares thoughts on its future directions.

**Keywords:** International affairs; Korean Medical Association; World Medical Association;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Region

### 서 론

1949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활동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Region, CMAAO)에서의 중추적 역할과 각국 의사

회와의 상호교류를 주축으로 오늘날 국제 의료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WMA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국을, CMAAO에서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으면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렇듯 국제무대에서 중대된 역할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국 의사회 및 NGO 등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본고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의협의 국제협력 발전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제협력 주요 업무와 성과

### 1. 의협 국제협력의 태동: 세계의사회 가입 및 활동

WMA 가입은 의협 국제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MA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인체실험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과 의료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각국의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102개국 의사회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WMA는 선언, 결의와 성명을 통해 최상의 의료윤리 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사의 행동윤리 강령인 제네바 선언(1948),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1964),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건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의사가 관여되는 것을 금지하는 도쿄 선언(1975) 등이 잘 알려져 있다.

WMA 참여를 통해 의협은 국제 기준과 이슈들을 흡수하면서 역량을 다져왔고 1961년 WMA에서 제정한 의사윤리를 의협 차원에서 다시 채택하여 최고의 의료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1985년 브뤼셀 총회에서 문태준 당시 의협 회장이 WMA 회장에 취임하면서 의협은 WMA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부의장국과 이사국, 각종 정책 실무그룹 회원국을 두루 역임하며 WMA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공로와 역량을 인정받아 2008년 WM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 2. 세계의사회 총회 서울 유치: 역대 최고의 총회로 평가

2008년 개최한 WMA 서울 총회는 총 51개국 6백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의협 창립 100주년과 맞물리면서 국내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하였

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환영리셉션에 참석하고 총회 개회식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외국 참석자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환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역대 최고의 총회로 평가되면서 국내 회원들에게는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용 면에서도 '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서울 선언(Declaration of Seoul)'으로 명명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선언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서울 선언 전문 참조).

또한 임상실험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위약 사용을 허용하는 헬싱키 선언 개정안도 채택되어 전 세계 의과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으로 WMA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만큼 본 선언은 장시간의 찬반격론을 거쳐 피실험자에 대한 위약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등 논란이 되는 조항들의 힘겨운 개정작업을 이끌어 냈으로써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실험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큰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헬싱키 선언과 기본적인 뜻을 같이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권의 최전선에서 의사가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선언과 헬싱키 선언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정책이 채택되어 내용 면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은 서울 총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총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의협의 활약상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에 관한 세계의사회 서울 선언

## WMA Declaration of Seoul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2008.10.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에서 채택  
Adopted by the WMA General Assembly, Seoul, October 2008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의 원칙들을 채택한다.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having explored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physician clinical independence, hereby adopts the following principles:

1.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한 요소는,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에 있어 외부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직업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The central element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is the assurance that individual physicians have the freedom to exercise their professional judgment in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ir patients without undue influence by outside parties or individuals.

2. 의학은 고도로 복잡한 술기이자 학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 의사는 의학 전문가와 치유자로 태어난다.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환자가 상당 부분 결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외부 간섭 없이 임상적으로 적절한 권유를 할 것을 기대한다.

Medicine is a highly complex art and science. Through lengthy training and experience, physicians become medical experts and healers. Whereas patients have the right to decide to a large extent which medical interventions they will undergo, they expect their physicians to be free to make clinically appropriate recommendations.

3. 의사들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가용 자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임상적 독립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physicians recognize that they must take into account the structure of the health system and available resources, unreasonable restraints on clinical independence imposed by governments and administrator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not least because they can damage the trust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4. 병원 행정가들이나 제3의 지불자는 의사의 직업적인 자율성이 보건의료비의 신중한 운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에 대해 부과하고자 하는 제약들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나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Hospital administrators and third-party payers may consider physician professional autonomy to be incompatible with prudent management of health care costs. However, the restraints that administrators and third-party payers attempt to place on clinical independence may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Furthermore, restraints on the ability of physicians to refuse demands by patients or their families for inappropriate medical service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either patients or society.

5.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세계의사회는 환자를 돌봄에 있어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reaffirms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not only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high quality medical care and therefore a benefit to the patient that must be preserved, but also as an essential principle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therefore rededicates itself to maintaining and assuring the continuation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in the care of patients.



기회가 되었다. 서울 총회의 성공은 의협과 한국 의료계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행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쾌거였다.

### 3.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의장국 진출 쾌거:

####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이사장 피선

WMA와 함께 의협 국제협력의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CMAAO이다. 지난 1956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CMAAO는 아시아 지역의 특화된 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WMA의 특정 사안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공동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총 18개국 의사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의협은 1961년 가입 이래 고 명주완 전 회장, 문태준 명예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5년 서울에서 제 24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이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또 2007년부터 결의문위원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CMAAO의 정책수립 절차를 개선하기 시작하여 2011년 3월, 결의문위원회 의장국으로서 task-shifting에 관한 ad-hoc committee 회의(일본 도쿄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리더십과 회원국의 신뢰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CMAAO 회원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피선됨에 따라 의협이 CMAAO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의장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이로써 의협은 국제보건의료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CMAAO를 좀 더 생산적인 정책수립 기관으로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 간의 교류확대와 조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CMAAO 내에서 의협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각국 의사회와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을 바탕으로 각국 의사회와의 상호 교류도 팽창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일본 의사회와는 1970년

대부터 공동세미나 개최, 임원간 상호 방문, 각종 연구단 방문 등 양자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신 의료 정책에 관한 자료교환을 통해 서로의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사회, 독일의사회, 대만의사회 등 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화의학회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바, 향후에는 중화의학회의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의사회와의 상호 교류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최근 외국 의사회로부터 우리나라 의료계의 동향이나 우리협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화된 국력과 국내 의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한의사협회의 강화된 위상, 그리고 공헌

2008년 WMA 서울 총회의 개최로 위상이 한층 강화된 의협은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WMA 태평양지역 이사국 재선에 성공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WMA 실무그룹 참여를 통해 주요 정책개발에 기여해왔는데, task-shifting(보건의료인력간 권한 이양), 의사 처방권, 건강과 환경 실무그룹 멤버로서 결의문 작성과 각국 의사회 차원의 실천 전략 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Task-shifting에 관한 결의’는 아프리카 등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task-shifting(의사의 권한 중 일부를 간호사나 의료보조인력에 허용하거나, AIDS 등의 특정 질병만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인력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전략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task-shifting이 정상적인 의료교육제도를 통한 의사인력 배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이슈는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9년 WMA 뉴델리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CMAAO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task-shifting과 같은 맥락에서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내세운 ‘처방권에 관한 결의문’이 2010년 WMA 밴쿠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동 정책에 대해서는 영국, 북유럽 국가들의 포괄적 처방권 위임 주장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처방권 위임 금지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우리협회를 주축으로 일본,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위임 금지 원칙을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입장이 원칙으로서 관철되었다.

한편, 건강과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요소에 대처하고 이산화탄소 절감 노력에 의사와 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델리 선언’ 채택에 우리협회의 활발한 참여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WMA 내에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옴으로써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WMA 환경 실무그룹에 참여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WMA 대표로 발탁되면서 국내를 넘어서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건강과 기후변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WMA 내에서 관련 논의와 행동지침 작성에서 우리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WMA 내에서 우리협회의 활약과 공헌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박윤선 전 의협 전략기획팀장이 WMA 사무국에 정식 직원으로 스카우트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협회가 WMA 내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WMA 정책 핸드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성미 현 국제협력팀장을 WMA에 파견하여 모든 정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자책자로 제작하는 실무를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실무 프로젝트의 인력지원은 새로운 형태의 공헌으로서 WMA는 공

식 석상에서 우리협회에 수 차례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의협은 WMA에 공헌 차원에서 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의 국제기구 참여와 국제협력 사업이 지니는 의의

국제기구 참여는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하였듯이 이제 의협도 우물 안 개구리에서 탈피하여 WMA,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회로 변모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의학과 의료체계의 비약적 발전은 국제교류와 협력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바,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의 의학과 의료체계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이제 국제협력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WMA와 CMAAO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협회에 일차적인 채널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는 국제사회의 의료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환자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WMA에서 다루는 정책들 가운데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수립한 정책이나 원칙들이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WMA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WMA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WMA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WMA의 결의는 특정 사안, 특히 의료윤리에 있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신념과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각국 의료계에서 규정으로 확립되거나 규정 확립에 있어 지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WMA의 최고 성과물인 헬싱키 선언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동 선언은 채택 후





50년이 되어가는 지금 세계 각국의 임상연구 과정에서 그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은 채택된 이후에도 '윤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과 수정작업을 거치는 관례로 사문화하지 않고 지침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각국 의사회와의 교류는 의료정책과 의사회 조직 운영에 있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특히 저개발국의 의료제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회 간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부 간 공식 교류 채널이 단절되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도약을 위한 향후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의협은 그동안 WMA 내에서 이사국, 회장국, 부의장국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2008년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WMA 내에서 주요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고 이후에도 정책 개발과 실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과 공헌의 폭을 넓혀 오고 있다.

의협의 이러한 위상 강화는 WMA 내의 역학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 우리협회의 위상 강화는 자칫 영미권 위주로 흐를 수 있는 WMA의 세력구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지난 해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국제과 인력 재배치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사회가 당분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WMA에서 우리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결집하고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이사국 진출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선거에서 우리협회를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사회 및 대만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뿐만 아니라 의협의 자체 유효투

표수를 확보하기 위한 회비 납부 규모의 점진적인 증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협회가 WMA의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국을 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회장은 미국의사회, 이사장(의장)은 호주의사회에서 맡고 있으며, 3개 위원회 가운데 의료윤리위원장은 노르웨이의사회, 사회의무위원장을 영국의사회에서 맡고 있어 지나치게 영미권과 유럽권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유일하게 재정기획위원장을 우리협회에서 지지한 이스라엘 의사회(WMA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에서 맡고 있으나 이스라엘의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활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예·결산 및 신규 사업계획,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등 WMA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국을 의협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CMAAO 역시 우리협회가 국제 의료계에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인 동시에 지지 기반인 만큼, 그간 우리가 주도해 온 CMAAO 운영 개선과 정책수립 체제 확립 등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의장국 연임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CMAAO에서 수립된 정책들은 WMA 내에서도 아시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 2011년 대만 타이베이 총회에서 우리가 의장국, 대만이 회장국, 일본이 사무국을 맡아 동아시아지역에서 트로이카 체제를 형성한 만큼 CMAAO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의사회는 지난 7월 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CMAAO 발전을 위한 3개국 실무회의'를 갖고 CMAAO가 정책 수립과 의권 수호를 위한 국제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3개국 의사회는 심포지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심포지엄 주제 선정부터 연자 선정, 심포지엄 결과물로서의 정책 초안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솔하도록 함으로써 심포지엄의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와 연계한 결의문 수립 활성화 방안에 합의하고 각 회원국 회담을 거쳐 오는 11월 중간이사회(마카오)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협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회장국, 의장국, 사무국 실무회의는 CMAAO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형식으로서 전체 회원국 회의에 앞서 중대 과제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 의사회간 교류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대만 및 미국의사회 뿐만 아니라 WMA 차세대 주역인 독일,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 사회 등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CMAAO 내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중립적 성향의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CMAAO의 본래 취지인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우리협회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결 론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국가별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 의료계를 둘러싼 급변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재해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오늘날 의사단체의 회무 추진은 진퇴양난의 교착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제교류와 협력은 변화의 동향을 한 걸음 앞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각국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이렇듯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 수호라는 의사의 천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의협도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차원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세계화·국제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의협의 세계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국제협력; 대한의사협회; 세계의사회;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